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한왕 고구’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이은경**

〈차 례〉

1. 서론
2. 역사적 세계에 기록된 한왕 주고후
3. 허구적 세계에 형상화된 한왕 고구의 양상
4.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한왕 고구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왕 고구’의 소설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역사 인물이 허구적 서사 속에서 재구성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왕 고구는 명나라 성조의 둘째 아들 주고후를 모델로 한 인물이지만, 국문장편소설에서는 ‘고구’라는 명칭으로 일괄적으로 등장하며 역사적 기록과는 상이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특히 역사적 세계에서 주고후에 대한 기록이 제한적인 데 비해, 소설 속 한왕 고구는 폭력적 권력자, 호색적 인물, 비주체적 공모자, 가문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 등 다층적으로 변주된다.

이러한 변형은 단순한 인물 성격의 차이를 넘어 장편 서사의 구조적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한왕 고구는 정치적 갈등을 촉발하고 서사의 긴장을 유지하는 ‘기능적 악인’으로 작동하며, 질서와 무질서의 대비를 통해 주동 인물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그는 권력 질서, 통치 능력, 가문 윤리 등 다양한 층위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시험자’로 기능하며, 국문장편소설 서사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핵심 인물로 자리한다.

또한 한왕 고구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2023S1A5B5A17088978)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강사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다양한 성격과 기능으로 재구성되며, 이를 통해 국문장편소설은 허구적 세계를 확장한다. 더 나아가 이 인물은 개별 작품을 넘어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번주되며 서로 다른 서사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동일 인물의 다양한 변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층적인 이야기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한왕 고구의 형상화는 국문장편소설이 역사 인물을 단순히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사적 기능과 구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권력 질서와 윤리 질서를 조직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서사 전략과 허구적 세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한왕 고구, 주고후, 국문장편소설, 역사 수용, 허구적 세계, 서사 구조, 상호텍스트성

1. 서론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왕(漢王) 고구’의 다양한 서사 양상을 도출하고, 그 서사적 기능을 찾아봄으로써 국문장편소설이 역사 인물을 서사의 새로운 자원으로 재구성하는 방식과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은 중국 명대(明代)를 배경으로 하면서 다수의 역사 인물을 서사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¹⁾ 그러나 이들 인물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작품의 서사 구조와 도덕적 가치 체계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변형되며, 때로는 역사 기록에서 확인되

1) 주수민(「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시·공간 배경과 재위 황제」, 『어문연구』 48-2, 2020, 88쪽)은 68편의 가문소설 중 31편, 즉 45.58%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희(「장편가문소설의 명사 수용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91쪽)는 고전소설은 중국의 여러 왕조 중 특별히 송·명대 시대를 집중적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 않는 새로운 면모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국문장편소설이 역사와 허구를 단순히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 인물을 서사적 자원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명나라 한왕 주고후(朱高煦)는 이러한 변용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명나라 제3대 황제 성조 영락제(永樂帝, 1360-1424)의 둘째 아들로, 『명사』(明史)를 비롯한 각종 역사서에 '주고후(1380~1426)'로 명시된 실존 인물이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이와 달리 '고구' 혹은 '한왕 고구'라는 명칭이 일관되게 사용된다.

고전소설에서 중국의 역사적 실존 인물이 서사에 수용되는 사례는 흔하며, '소동파', '구준', '엄승', '만귀비', '곽분양' 등은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명칭으로 재현된다. 이에 비해 '주고후'의 경우는 정확한 실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에서 예외 없이 '고구'라는 이명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고구'라는 명칭은 중국과 조선의 역사 기록은 물론, 현대의 관련 연구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고전소설에서는 '주고후'라는 본명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 명칭 전환은 단순한 표기상의 변이가 아니라, 역사 인물을 서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에는 “고구는 고후를 잘못 읽은 것”²⁾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국문장편소설 중 단 한편에서도 '고후'로 표기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오기로만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한편 『한자사전』에서는 ‘煦’와 ‘煦’를 동일한 글자로 처리하며 ‘따뜻할 구’ 또는 ‘따뜻할 후’로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대에 ‘朱高煦’를 ‘주고후’가 아닌 ‘주고구’로 독음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비록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2) 조희용,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1권 244쪽과 17권 6쪽.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왕이 등장하는 모든 고전소설에서 해당 인물이 일관되게 ‘고구’ 혹은 ‘한왕 고구’로 표기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8~19세기 소설 향유층이 ‘주고후’라는 역사적 실명보다 ‘고구’라는 변형된 명칭을 보다 익숙한 호칭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지시할 때에는 ‘주고후’로, 서사적 맥락을 지시할 때에는 ‘한왕 고구’ 또는 ‘고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왕 주고후는 정란의 변 당시 영락제를 도와 큰 공을 세운 인물이지만 『명사』에 15건, 『조선왕조실록』에 3건 정도 언급될 뿐 그 행적이 상세히 서술되지는 않는다.³⁾ 그러나 명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에서는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다수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한왕 고구’가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으로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 <쌍천기봉>,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유이양문록>, <현봉쌍의록>⁴⁾ 등이며 <삼강명행록>, <완월회맹연>, <옥호빙심>, <남계연담> 등에서는 보조적 서사 장치로 활용된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3권 3책 이상의 장편소설로, 명나라 태조 대부터 한왕이 죽음을 맞는 성조 대에 이르는 시기를 서사적 배경으로 포괄하고 있다.

적지 않은 작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한왕 고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한왕 고구에 대한 언급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 역사 수용 양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왕 고구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반란’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왕을 조명한다. 문용식⁵⁾은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 <임화정연>을 대상으로 한

3) 주고후에 대해 언급한 역사서는 『태종실록』, 『인종실록』, 『선종실록』, 『국조현정록』, 『명통감』이 있으나 주고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것은 『명사』이므로 본고에서는 『명사』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4) <현봉쌍의록>은 완결된 작품은 아니지만 한왕 고구가 권5까지만 등장함으로 연구 대상 작품에 포함한다.

왕의 반란을 분석하며, 이를 영락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서사적 장치로 파악하였다. 김탁환⁶⁾ 역시 <쌍천기봉>에서 한왕의 반란이 역사적 사실과 동일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를 진압하는 공을 허구적 인물에게 귀속시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양상을 역사 요소를 관습적으로 활용하는 창작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박영희⁷⁾는 정난지변 수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한왕을 '역천자'로 규정하고 영락제와의 대비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조광국⁸⁾은 <옥호빙심>과 <쌍천기봉>에서 한왕의 반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허구적 인물의 서사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으며, 장곤⁹⁾은 해진의 결말부에서 한왕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양상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성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현주¹⁰⁾는 <성현공숙렬기>에서 한왕을 탐욕무도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그의 용서 서사를 계후자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장치로 해석하였다. 최근 서정현¹¹⁾은 <성현공숙렬기>와 <임씨삼대록> 두 작품에 걸쳐 등장하는 한왕을 주인공 가문과 대립하는 핵심 갈등 인물로 보면서, 주인공의 활약을 부각하기 위한 반란 주체로서의 형상이 강조된다고 분석하였다.

-
- 5) 문용식, 「고전소설에 나타난 국가변란의 구현양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2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91~136쪽.
 - 6)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 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176쪽.
 - 7) 박영희, 앞의 논문, 201쪽.
 - 8)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 <옥호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규장각한국연구원, 2001, 65쪽.
 - 9) 장곤, 「<옥호빙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1, 57쪽.
 - 10) 이현주, 「<성현공숙렬기> 역사수용의 특징과 그 의미-정난지변과 계후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0, 동아인문학회, 2015, 8쪽, 13~15쪽.
 - 11) 서정현, 「장편소설 속 반란을 소재로 한 군담의 양상과 그 의미-<소현성록>, <쌍천기봉>,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연작, <남정팔란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9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4, 69~72쪽.

이처럼 기존 연구는 한왕 고구를 주로 역사 수용의 맥락이나 서사 장치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역사 기록과 소설 속 형상 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한왕 고구가 다양한 작품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방대한 장편소설 구조 속에서 한왕 고구가 중심 인물이라기보다 갈등을 매개하는 역할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개별 작품 단위의 단편적 논의는 축적되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개별 작품 분석 과정에서 한왕 고구를 악인형 인물의 하나로 다룬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작품 내부의 인물 유형이나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왕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차충환¹²⁾은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을 분석하면서, 작품 초반 유부(府)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왕을 황제의 지친이자 악인으로 설정된 인물로 파악하였다. 전기화¹³⁾는 <성현공숙렬기>의 여부인과 임유린의 악행 과정에 한왕이 가담하고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며, 이를 악인형 인물군의 일부로 처리하였다. 심지어 한왕을 반관옥 등과 같은 계열로 처리하여 한왕이 갖는 악인의 층위를 낮게 취급하고 있다. 윤현이¹⁴⁾ 역시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남성 악인 조력자의 범주에 한왕을 포함시키고, 목지형·남환옥 등과 동일한 층위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왕 고구를 다른 악인 인물들과 동일한 범주로

12)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 연구」, 『어문연구』 36, 어문학회, 2008, 291~292쪽.

13) 전기화, 「<성현공숙렬기> 속 악인형 인물과 내면의 문제」, 『고소설연구』 59, 한국고소설학회, 2025, 43쪽.

14) 윤현이,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악행과 정치양상에 드러난 의미」, 『한국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2016, 213쪽.

묶어 설명함으로써, 해당 인물이 지나는 서사적 위상과 기능의 복합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한왕의 반란 동기를 단일한 감정 요인으로 환원하거나, 보조적 악인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은 인물의 다층적 성격과 서사적 역할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이들 논의는 개별 작품의 맥락에 집중되어 있어, 여러 작품에 걸쳐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는 한왕 고구의 공통적 특징과 변주 양상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 수용의 관점과 악인형 인물 연구라는 두 흐름을 통해 관련 논의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왕 고구를 중심에 놓고 그 서사적 기능과 형상 변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삼강명행록>, <완월회맹연>, <옥호빙심>, <남계연담> 등에서 한왕 고구의 서사는 비교적 미약하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연구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으나, 이러한 주변적 서사 역시 작품 전체의 의미망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왕 고구를 개별 작품의 보조적 인물이 아니라, 다수 작품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사적 매개자로 설정하고 이를 집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분량 장편소설 속에서 주요 인물과 사건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왕 고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작품 분석의 정밀도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역사 수용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왕 고구를 분석의 중심 단위로 설정하고 그 형상화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역사 인물의 작품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 변형이 서사 내부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왕 고구를 개별 작품에 등장하는 단순한 악인형 인물로 한정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문장편소설 서사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구조적 인물'로 재개념화하고자 한

다. 한왕 고구는 단순한 악인의 재현이 아니라, 권력의 일탈과 도덕적 질서의 위기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며, 주동 인물의 정당성과 서사적 긴장을 부각하는 기능적 존재로 작동한다. 나아가 그의 반복적 호출은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이 역사 인물을 선택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서사의 긴장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한왕 고구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통해, 국문장편소설의 역사 인물 활용 전략과 권력 재현 방식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2. 역사적 세계에 기록된 한왕 주고후

2장에서는 역사적 세계에 나타난 ‘한왕 주고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 세계는 사실성에 기초하여 실재했던 과거의 모델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서사와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역사 서술은 자료의 한계와 기록 주체의 선택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백을 내포한다.¹⁵⁾ 즉, 증거의 부족이나 역사가의 선별 과정에 따라 특정 사건과 인물은 강조되거나 배제되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 서술은 불완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 서술은 그것이 생산되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상이하게 해석되고 재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와 허구적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은 모두 현실을 언어적으로 재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¹⁶⁾ 이는 역사 서술 역시 서사적 구성의 원리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세계는 사실성에 대한 지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서사와는 구별되는 현실 인식의 기반을 유지한다.

15) 신호림, 「퇴계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36,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45쪽. 돌레첼의 이론 재인용.

16)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메타 역사: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1,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쪽수 추가★ 참조.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서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료에 나타난 '주고후'의 행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왕 주고후에 대한 역사적 세계는 중국과 조선의 정사(正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설 창작 당시 널리 읽었던 『명사』¹⁷⁾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학자들의 문집 자료는 당대 한왕 주고후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이 가운데 『명사』¹⁸⁾는 그의 생애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기본 사료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고후는 정난의 변 과정에서 연왕을 도와 군사적 공을 세운 인물로, 병법에 능한 장수로 평가된다.¹⁹⁾ 둘째, 이러한 공을 바탕으로 영락제 즉위 이후 한왕에 봉해졌으며²⁰⁾, 셋째, 성조로부터 총애와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기록된다.²¹⁾ 넷째, 그러나 태자와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방과 모함을 일삼는 정치적 긴장의 중심에 위치한다.²²⁾ 다섯째, 선종 즉위 이후에는 반란을 일으켜 체제에 도전하는 인물로 전환된다.²³⁾ 여섯째, 이

17) 주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고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명사』를 주로 하는 이유를 밝혔다.

18)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명사」,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를 참조.

19) 明史 / 本紀 凡二十四卷 / 卷五 本紀第五, 王三易馬, 矢盡揮劍, 劍折走登堤, 佯引鞭若招後繼者. 景隆疑有伏, 不敢前, 高煦 救至, 乃解. 何福空壁來援, 王軍少卻, 高煦伏兵起, 福敗走.

20) 明史, 本紀 凡二十四卷 / 卷八 本紀第八 / 仁宗, 先是, 郡王高煦、高燧俱以慧黠有寵於成祖.

21) 明史, 本紀 凡二十四卷 / 卷八 本紀第八 / 仁宗, 先是, 郡王高煦、高燧俱以慧黠有寵於成祖.

22) 明史, 本紀 凡二十四卷 / 卷八 本紀第八, 而 高煦、高燧與其黨日伺隙讒構. 或問太子: 「亦知有讒人乎?」曰: 「不知也, 吾知盡子職而已」

23) 明史, 本紀 凡二十四卷 / 卷九 本紀第九 / 宣宗 朱瞻基 / 宣德元年, 八月壬戌, 漢王高煦 反.

에 대해 선종이 직접 친정하여 이를 진압하고 주고후를 투항시키며²⁴⁾, 일곱째, 반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처형과 함께 그의 세력은 철저히 제거된다.²⁵⁾ 여덟째, 주고후와 그의 아들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결말에 이른다.²⁶⁾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볼 때, 역사적 인물로서 주고후는 초기에는 공을 세운 유능한 왕자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치적 갈등과 권력 투쟁의 중심인물로 변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킨 역적으로 규정되는 서사적 궤적을 보인다. 즉, 그의 생애는 ‘공신에서 반역자로의 전환’이라는 뚜렷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소설에서 재구성되는 한왕 고구 형상의 중요한 기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역사적 세계에서의 주고후는 단순한 반란 인물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긴장과 갈등이 축적되어 폭발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후 허구적 서사에서 한왕 고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비교 기준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 문인들의 문집²⁷⁾을 통해 주고후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실록에 나타난 관련 기록은 총 3건으로, 그 분량과 내용 모두 제한적인 특징을 보인다. 먼저 <태종실록> 7권²⁸⁾에

24) 明史, 本紀 凡二十四卷/ 卷九 本紀第九 / 宣宗 朱瞻基 / 宣德元年, 壬午, 高煦 出降. 癸未, 改樂安曰武定州. 乙酉, 班師. 九月丙申, 至自武定州, 錮 高煦 於西內.

25) 明史 권 118 ‘列傳 諸王三’/ 王斌等皆伏誅, 惟長史李默以嘗諫免死, 謫口北爲民. 天津、青州、滄州、山西諸都督指揮約舉城應者, 事覺相繼誅, 凡六百四十餘人, 其故縱與藏匿坐死戍邊者一千五百餘人, 編邊氓者七百二十人. 帝制《東征記》以示群臣.

26) 明史 권 118 ‘列傳 諸王三’/ 高煦及諸子相繼皆死.

27)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8)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0일. “.....짐이 천하의 통의(通義)를 생각하고 중지(衆志)가 모두 같은 것을 따라서 영락(永樂) 2년 4월 초 4일에 장자(長子) 고치(高熾)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를 삼고 책(冊)과 보(寶)를 주어 동궁(東宮)에 정위(正位)

는 명나라 황태자 책봉과 관련된 조서 속에서 주고후가 한왕에 봉해졌다는 사실이 간략히 언급될 뿐, 그의 인물됨이나 정치적 행적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제시되지 않는다.²⁹⁾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24일 계축 2번째 기사³⁰⁾는 명나라 선덕제의 조칙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한왕의 반역과 그 진압 과정이 서술되는데, 이 역시 『명사』의 기록과 유사하게 주고후를 '적수(賊首)'로 규정하고 반란의 주체로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현종실록> 1권, 현종 대왕 행장(行狀) 기사 및 문집 자료에서는 주고후의 성품을 '선량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하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를 포용한 인종의 덕성을 부각하는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³¹⁾ 즉, 주고후는 독립적인 역사적 인물로 조명되기보다, 성군의 덕치를 설명하기 위한 반면적 사례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조선의 기록에서 주고후는 반역을 꾀한 부정적 인물로 인식되면서도, 그 자체의 행적이나 성격이 심층적으로 탐구되기보다는 정치적·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형제간 갈등을 야기한 불충한 인물로서의 이미지와, 이를 포용하는 군주의 덕을 대비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

하게 하고, 둘째 아들 고후(高煦)로 한왕(漢王)을 삼고, 세째 아들 고수(高燧)로 조왕(趙王)을 삼고,....”

29) 1404년 명나라 영락 2년, 내사 양진보 등이 명나라 황태자 책봉을 알리는 조서에 영락제가 대위를 이은 당위성과 함께 태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둘째 아들인 주고후를 한왕에 봉하고, 한왕의 장자 고충점(沖鹹)으로 한의 세자를 삼는다는 내용으로 주고후는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 않다.

30) 1426년 명나라 선덕제의 조칙을 김시우가 베껴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왕 고후의 반역과 선덕제를 향한 대한 불충한 행동, 모반을 막기 위해 선덕제의 친정환 내용 잘 드러난다.

31) <백호전서> 20권, '현종 순목순무 경인창효 대왕의 행장'에서도 주고후의 성품보다 주고후를 감싸 안은 인종에 집중하고 있다.

서, 조선에서의 주고후 인식은 도덕적 서사 속에 편입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3. 허구적 세계에 형상화된 한왕 고구의 양상

3장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즉, 허구의 세계에 형상화된 ‘한왕 고구’의 다양한 인물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허구적 세계는 텍스트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서, 작품이 구축한 고유의 질서와 의미망을 포괄하는 ‘텍스트적 우주’로 이해될 수 있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재구성하여 또 다른 서사 세계를 창출한다. 따라서 허구의 세계에서의 ‘한왕 고구’는 역사적 세계의 ‘주고후’가 보여준 삶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서사적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인물로 기능한다. 실제로 국문장편소설에서 한왕 고구는 ‘난폭한 권력자’로서 작중 인물들에게 고난을 부과하고, ‘여색을 탐하는 인물’로서 여성 인물을 위협하며, ‘비주체적 조력자’로서 악인의 행위를 보조하거나 선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제적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문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판단력 없는 아버지’로서 가족 구성원의 일탈을 방조하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기능한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한왕 고구의 소설화 형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권력 질서 전반을 위협하며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정치적 교란자’ 둘째, 독자적 의지를 결여한 채 희화화되는 ‘비주체적 인물’ 셋째, 가문 내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문제적 가족 구성원’이다. 이와 같은 형상화는 역사적 사실의 단순한 왜곡

32) 안스가 뉘닝·베라 뉘닝 엮음, 조정식 외 옮김, 『내러톨로지외 가능세계이론: 대안세계로서 내러티브 텍스트』,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02, 235쪽.

이라기보다, 서사 구조 속에서 인물의 기능이 재배치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역사 기록에서 정치적 야심가로 제한되었던 주고후는 국문장편 소설에 이르러 다양한 서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확장되며, 이는 한왕 고구의 소설화가 지니는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권력 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교란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역사 기록 속 주고후는 정치적 야심과 반역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사건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적 기록에 머물 뿐, 그가 권력 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란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즉, 역사 속 주고후는 '반란의 주체'일 뿐, 서사 구조를 조직하는 기능적 존재는 아니다. 반면 국문장편소설은 동일한 역사적 출발점을 활용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서사의 핵심적 긴장 장치로 재편한다. 태자와 천자 사이를 이간하고, 충신을 모함하며, 간신과 결탁하는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악행의 나열이 아니라 권력 질서를 지속적으로 교란하는 기능으로 체계화된다. 이는 개별 사건의 재현을 넘어, 서사 전반의 갈등 구조를 작동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문장편소설은 대체로 왕도 정치의 회복과 충신 중심의 질서 확립을 지향하며, 이러한 서사 구조 속에서는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적 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왕 고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서사 내부에서는 권력 체계를 흔드는 구조적 교란자로 재배치된다. 결과적으로 역사에서의 반역이 일회적 정치 사건으로서 서술된다면, 소설에서의 반역은 서사 전반에 걸쳐 긴장을 생산하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기능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전환은 인물의 성격 변화라기보다 서사적 기능의 변화에 가깝다. 역사적 인물이 특정 사건의 가해자로 한정된다면, 소설 속 한왕 고구는 권

력 구조를 시험하고 서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그는 단발적인 반란 주체에 머무르지 않고, 태자 책봉 문제, 충신 등용과 배제, 가문 질서의 안정 문제 등 다양한 서사 국면에 개입하며 반복적으로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설 속 한왕 고구의 첫 번째 형상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권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주동 인물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각시키는 대비적 장치, 곧 서사 구조를 조직하는 기능적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형상화는 역사 기록 속 반역 사건을 서사적 갈등 구조 속으로 확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이양문록>, <쌍천기봉>,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임씨삼대록>, <현봉쌍의록> 등에서 한왕 고구는 권력의 사적 남용, 폭력의 직접적 행사, 반란(역모)의 주도, 무력을 통한 인물 제거 등의 서사적 행위를 통해 중심인물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폭력성과 갈등 유발 기능은 역사적 세계에서 주고후가 반역을 기도하고 유폐·처형된 인물이라는 기록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허구적 세계에서는 반란의 전개 과정과 결말이 작품마다 상이하게 변주되면서, 해당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서사적 긴장을 조직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한왕 고구는 자신의 뜻에 반하거나 미움을 사는 인물을 대상으로, 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처벌과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폭력성은 개별 사건을 넘어 서사 전반의 갈등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유이양문록>에서 유잠은 한왕의 ‘상시 불쾌지심’을 지속적으로 간언하다가 여섯 자녀를 잃는 비극을 겪는다. 비록 작품 전체에서 한왕의 출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 사건은 유잠 가문의 이후 서사를 규정하는 동시에 반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결정적 계기로 기능한다.³³⁾ <쌍천기봉>에서는 한왕의 악행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정

현이 이관성의 과거 응시를 만류하며 한왕의 화를 피하려는 장면이나, 반란 진압 과정과 관련된 서술을 통해 그의 위협적 존재감이 암시된다. 또한 <옥호빙심>에서는 해진이 영락제에 대한 충성을 이유로 한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와 투옥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한왕의 폭력성이 보다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한왕은 해정랑과 이한성 등의 영웅적 인물을 부각시키는 대비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임화정연>에서 한왕 고구는 중심인물 임규를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악행을 시도하지만, 초자연적 장치와 영웅적 능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다.³⁴⁾ 이는 그의 폭력성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서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또한 <임씨삼대록>과 <현봉황 의록>에서는 딸의 혼사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을 이용해 납치를 지시하는 등, 사적 감정에 따라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왕 고구의 폭력성과 권력 남용은 다양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되며, 중심인물을 위기에 빠뜨리고 서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한왕 고구의 강한 권력욕은 대부분 반란으로 귀결되지만, 그 원인은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즉,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서사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감정에 기초한 반란이 나타난다. <유이양문록>에서는 유잠을 제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분노가 반란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며, 한왕은 사병을 동원하여 변방을 공격하고 황성으로 진격한다. 둘째, 정치적 기회를 포착한 반란이 제

33) 이은경,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6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5, 225~226쪽, 231쪽.

34) <임화정연> 권67. “두 놈을 버혀 분을 풀고 제 일가를 역모로 죽이고 남규의 삼치오 회 텃혀절열이라 하니 내 궁둥의 시첩을 삼아 한을 설히리라”며 분노하여 임규를 해하는 표문을 천자에게 올린다. 그러나 석가월에 의해 표문의 내용은 바뀌어 전달되는 등 선인을 향한 고구의 악행은 실패를 거듭한다.

시된다. <쌍천기봉>에서는 반역의 의도를 잠재하고 있던 한왕이 방해꾼 이현의 부재라는 권력 공백을 틈타 반란을 일으키며, <현봉쌍의록>에서는 서태황후의 죽음을 계기로 정세의 혼란을 이용한 기회적 반란이 전개된다. 특히 <현봉쌍의록>³⁵⁾에서는 요광현의 반대로 북경 진입이 좌절되자, 딸 청능군주의 권유를 계기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등 반란의 동기와 과정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셋째, 정당성 확보를 내세운 반란이 나타난다. <임씨삼대록>³⁶⁾에서 한왕은 과거의 공적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 획득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임화정연>에서는 한왕의 반란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지만, 후작인 <쌍성봉효록>³⁷⁾에서 이를 계승하여 반란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작품 간 서사 연속성 속에서 해당 모티프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왕 고구의 반란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감정적 동기, 정치적 기회, 정당성 확보 논리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서사적 장치로 변주된다. 이는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넘어, 서사적 긴장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적 재배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왕 고구의 반란에 대한 최종적 결말 역시 작품마다 상이하게 변주된다. 이는 동일한 역사적 인물이 서사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영웅에 의한 제압과 처벌로 귀결되는 유형이 나타난다. <유이양문록>³⁸⁾에서는 반란 진압 이후 한왕이 체포되지

35) <현봉쌍의록> 권5 상. “선제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시더니 역졸 요신이 막은 비라...과인이 당당히 황가적즈라. 어찌 도로혀 어린 아히에게 머리를 굽혀 칭신하리오. 마땅히 병을 거느려 대업을 도모하리라.”

36) <임씨삼대록> 권22. “문황제를 도와 건문을 치고 대업을 이룬 공이 큰데도 대위에 임해 아자비를 용납하지 아니니”

37) <쌍성봉효록> 권15.

만, 황제의 망설임 속에서 처형되지 못하고 이후 자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인다. <현봉쌍의록> 역시 반란 진압 후 체포된 한왕이 사약을 받고 죽는 결말로 마무리되며, 이는 체제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서사적 처리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과도하게 강화된 응징을 통해 악인의 파국을 극대화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쌍천기봉>³⁹⁾에서는 한왕이 참혹한 방식으로 처형되는데, 이는 정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악인의 최후를 극단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서사적 카타르시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셋째, 서사적 여지를 남기는 결말도 확인된다. <성현공숙렬기>에서는 한왕의 최후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서술자의 간접적 평가로 처리되며, <임씨삼대록>에서는 죽음 이후 환생과 재반란이라는 설정을 통해 악인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봉쌍의록>에서는 영웅에 의한 체포와 사약으로 마무리된다.⁴⁰⁾

한편 <완월회맹연>⁴¹⁾에서는 한왕의 행적이 간략히 언급되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그의 폭력적 권력 행사와 그에 대한 응징이 전개된 상태에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한왕의 부정적 형상이 서사적 배경으로 가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왕 고구의 결말은 단일한 서사로 수렴되지 않고, 체포와 처벌, 극단적 응징, 서사적 유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된다. 이는 악인의 최후

38) <유이양문록> 권2. 유진이 반란을 진압하고 한왕을 잡아오지만 인종은 차마 동생 한왕을 죽이지 못한다. 성종이 즉위하자 한왕이 탈출을 시도함은 물론 조카 성종에게 칼을 뽑아 위협하다가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한다.

39) <쌍천기봉> 권 5. 해정량과 이한성의 수륙 공격으로 산동성에서 한왕을 사로잡는다. 성종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자 5백 근의 구리 항아리를 한왕의 머리에 썬우고 솥을 피워 녹여 죽인다.

40) <현봉쌍의록> 권 5. 요광현이 낙안성을 함락하자 사위 김창연이 한왕을 잡아다 바친다. 결국 한왕은 사약을 받고 죽는다.

41) <완월회맹연> 권1. “한님 선이 석연에 한왕 고구에 모함을 넘어 숨십견 원스호고 기즈 흠과 겹이 잇셔 디원을 신설흔 후 고구를 죽여 원슈를 갑흔니”

를 통해 질서 회복과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서사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왕 고구가 단순한 인물 재현을 넘어 서사 구조 속 기능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쌍천기봉>에 나타나는 잔혹한 처형 장면은 정사에는 간략하거나 없는 부분으로, 야사적 상상력의 개입을 통해 서사적 효과가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왕 고구는 서사의 외곽에 위치한 인물이 아니라, 중심 질서를 위협함으로써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대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 첫째, 주동 인물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한왕 고구의 교란 행위는 충신과 태자의 인내와 충절을 부각하는 대비 장치로 작동한다. 둘째, 왕권의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질서의 재확인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한왕 고구의 위협이 클수록 질서 회복의 서사적 성취 또한 더욱 극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권력 질서의 교란자’로서의 한왕 고구는 역사적 사실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장편 서사의 구조적 요구에 따라 기능이 재구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반역의 가해자인 동시에 서사를 조직하는 장치이며, 권력 질서를 흔드는 존재이면서 그 정당성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역설적 인물이다.

2) 주체성의 결핍과 희화화된 악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왕 고구는 권력 질서를 교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모든 작품에서 그가 일관되게 ‘주동적 악인’으로 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작품에서 그는 간신의 꾀에 넘어가거나 타인의 계략에 이용되는 비주체적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한왕 고구의 악행을 절대적 위협으로 그리기보다는, 통치 능력의 결여와 판단력 부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왕 고구는 <성헌공숙렬기>, <임씨삼대록>, <현봉쌍의록> 등에서 주체적으로 악을 주도하는 인물이 아니라, 타인의 악행에 가담하거나 그

계략에 포섭되는 문체적 조력자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형상화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존재, 즉 악의 실행을 매개하는 도구적 인물로 그를 위치시키며, 결과적으로 인물의 서사적 위상을 현저히 축소시킨다. 나아가 그는 악인들의 은신과 도피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적 공간이자, 악행을 촉발하는 매개로 기능함으로써 서사 구조 내 조롱과 풍자의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한왕은 반관옥과 임유린의 조종에 휘둘리는 인형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반관옥은 한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임희린 일가를 몰락시키려 하였으며, 한왕은 감언이설에 속아 그 음모를 돕는다. 소소저납치 사건의 발각을 두려워 우왕좌왕하는 한왕에게 반관옥이 안심을 유도하는 장면은,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언설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적 존재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한왕은 임유린과 결탁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고, 충신 임희린을 모함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 이는 그가 악의 주체라기보다 악의 실행을 매개하는 도구적 존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상화는 역사 기록에서 전공을 세운 장수로 인식되는 '한왕 주고후'의 모습과 대비되며, 권력자의 주체성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서사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씨삼대록>⁴²⁾에서 한왕은 목지형과 능운니고 등의 꾀에 넘어가 악행을 조력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특히 설성염을 바치려는 계략에 동조하여 직접 군사를 이끄는 모습은 권력자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충동과 타자의 조종에 의해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한왕의 행위는 자율적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유도된 결과로 제시되며, 이는 그의 권위와 위상을 희화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나아가 이러한 희화화는 권력자의 무능과 비주체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권력 자체의 정

42) <임씨삼대록> 권17.

당성을 의문시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현봉쌍의록>에서는 죄를 숨긴 최승이 낙안주 한왕에게 의탁함으로써 권력과 악의 결합 양상이 드러난다. 작품에서 한왕은 최승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배경으로 작동하며, 이는 권력이 악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승의 죄상이 드러나자 한왕은 곧바로 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를 일관된 악의 주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 존재로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한왕은 악인의 보호자이면서도 동시에 이를 배제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며, 이는 권력자의 윤리적 공백과 주체성 결여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서사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 첫째, 악의 위상을 상대화한다. 전면적 폭군이 아니라 판단력 없는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질서에 대한 위협은 구조적이되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둘째, 회화화의 효과가 나타난다. 무모한 출전, 허세에 찬 행동, 사태가 불리해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은 악인의 위엄을 해체하고 풍자적 거리감을 형성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비주체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 묘사를 넘어, 권력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충신 및 태자와 대비됨으로써, 한왕 고구는 '권력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부정적 전형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그의 형상은 악의 극대화가 아니라 권력 부적합성의 형상화를 통해 통치 이념을 역설적으로 강화한다.

따라서 제2유형은 제1유형과 단절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중적 설정은 한왕 고구를 권력 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그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그를 위협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만든다. 이는 장편 서사가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안정적 질서 회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완충 장치로 작용한다.

이는 일부 작품에서 한왕이 방탕하고 음란한 성격의 난봉꾼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권력을 지닌 인물이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기보다 개인적 욕망에 몰두하는 모습은 권력자의 부적합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를 희화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색을 탐하는 방탕한 인물의 모습은 주로 <성현공숙렬기>, <임화정연>, <삼강명행록>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상은 역사적 세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허구적 설정으로, 해학과 조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난폭한 권력자로서의 이미지와는 달리 욕망에 휘둘리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되며, 이는 작품 내 영웅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력자의 도덕적 타락을 풍자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한왕은 반관옥과 공모하여 주숙렬과 소소저를 차지하고자 음탕한 행위를 시도한다. 주숙렬을 얻기 위해 유모 대진의 방에 숨어 기다리는 장면, “아니꼬은 너를 피호노라 단숨 스미로 코을 바고”⁴³⁾라는 대목에서 확인되는데, 바람이 불면 사람의 자취인가 싶어 뚫어질 듯 바라보는 한왕의 모습은 욕망에 집착하는 인물의 추악함과 우스꽝스러움을 극대화한다.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한왕은 반관옥의 누이 반연화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서술자는 두 인물을 “음녀와 난봉꾼”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타락을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음탕한 행위는 한왕이 스스로 상투를 베고 달아나는 해학적 장면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주숙렬이 유배를 계기로 여성 영웅으로 성장하는 서사적 계기로 기능한다.

<임화정연>에서 한왕의 난봉적 성향은 더욱 노골적으로 제시된다. 그는 전쟁 중에도 미색을 좇아 통음을 멈추지 않으며⁴⁴⁾, 조옥연의 미모에 매료되어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⁴⁵⁾ 그러나 조현궁의 도술에 번번이

43) <성현공숙렬기> 권7.

44) <임화정연> 권25.

45) <임화정연> 권67. “도시의 청춘화기를 겸하여 신술이 비상하다 하니 내 저를 어더

좌절되고, 결국 “요녀의 신기 여츠 하니 다시 생각디 아니하려니와”라며 체념하는 장면은 욕망의 무능과 비굴함을 드러내며 조롱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비극적 종결을 야기하는 악행의 정점 대신 욕망 좌절의 희극적 종결을 통해 인물의 위상은 더욱 축소된다.

<삼강명행록>에서도 한왕은 미색 앞에서 판단력을 상실하는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서사 전체에서 분량은 크지 않지만 영웅담 내부의 풍자적 장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관음원에서 사부인을 잡으려던 한왕은 둔갑한 현원의 미모에 매혹되어 목적을 잊고 집착하는 모습⁴⁶⁾으로 전락한다. 현원이 쇠손으로 한왕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은 권력자의 무력화와 조롱의 정점을 연출하며, 이어 영락제의 건문제 추적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난봉꾼으로서의 형상이 연왕의 제위 찬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3) 가문(왕실)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적 구성원

한왕 고구의 형상화는 정치 권력의 차원을 넘어 가문 질서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 <임화정연>, <현봉쌍의록>, <유이양문록>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한왕 고구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과잉된 보호를 받는 인물로 그려진다. “문황데 그 공이 만타 ㅎ사 상시 총인 ㅎ시니.....”⁴⁷⁾라는 서술은 한왕이 황제와 태자의 비호 속에서 제약 없이

후궁의 두면 반성이 꽤흐썸 아니라 타일 대스롤 도모홀 썸의 저로 ㅎ여금 도술을 일울 것이니 엇디 텃헝이 아니리오.”

46) <삼강명행록> 권4. “황홀난축 ㅎ여 썸니 나아가 압히서 낫출 홀들어”, “달내며 저히며 병든 괴썸 어르듯”, “명일 후거의 시러가 비빈을 삼으리라”.

47) <유이양문록> 권1. “문황데 그 공이 만타 ㅎ사 상시 총인 ㅎ시니 일노 드디여 방즈 ㅎ야 그옥이 탈적홀 쓰디 잇거늘 상이 그 위인을 염녀 ㅎ사 낙안썸 부요지디를 베히 봉 ㅎ시니 왕이 도라와 민양 큰 쓰클 품어 텃지 안가 ㅎ시물 기다리니 그 세 홀약 ㅎ미 낭즈 ㅎ니라. 텃지 비록 집착 ㅎ시나 모로는 체 ㅎ고 티지 인호 ㅎ시니 도명 인심 만나마 텃지 못 ㅎ야 장니 스세를 기다리며 뉘 감회 한왕을 침노홀 지 잇스리오.”

행동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가족의 보호는 그의 악행을 가중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한왕 고구를 가족 공동체 내의 문제적 구성원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역사서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이 허구적 서사가 확장된 양상으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악인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지닌다. 즉, 그의 악행은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유교적 윤리의 근간인 가족 윤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심화된다.

대체로 많은 작품에서 한왕 고구가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징조를 지닌 존재로 제시된다. 흉몽, 기골의 이질성, 반골의 상 등은 장차 가족에게 해가 될 인물임을 예고하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형인 주고치와의 외모와 언행 비교를 통해, 그가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적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부각된다. <남계연담>에서는 “머리털이 붉고 눈이 푸른 자가 두 손에 창검을 들고 뿔 없는 검은 용을 타고”⁴⁸⁾ 내려온다는 서후의 태몽을 통해 고구를 진우량의 후신으로 상징하며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한다. 또한 <임화정연>에서는 “한왕은 신치 늙음하고 괴골이 웅위하며 미우의 불냥 혼 기운이 낮트나고 꼭뒤의 반골이 이시니 선종치 못홀지라”⁴⁹⁾라는 묘사를 통해 외형과 내면의 불일치를 강조하며 부정적 성격을 드러낸다. <쌍천기봉>에서는 “구각이 장대하고 눈이 모질고 상모가 흉하여 타일 흉종할 거동”⁵⁰⁾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이미 불길한 기운을 지닌 인물로 제시된다.

이러한 예고처럼 한왕 고구는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형제와 조카를 이간질하고, 여동생 효장공주까지 포함하며 조카를 죽이려 하는 등 가족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한다. 그러나 이와

48) <남계연담> 권2.

49) <임화정연> 권23.

50) <쌍천기봉> 권2.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형, 조카 등 가족은 그를 애정으로 감싸 안는다. <쌍천기봉>에서 아버지 영락제는 “한왕은 년쇼호야 비록 삼가디 못흔 일이 이시나 그 무슴 대단흔 과실이며 당년 환 될 일이 이시리오”⁵¹⁾ 라고 하여 그의 악행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선덕제에게도 이어져, 반역을 꾀한 한왕이 붙잡혔음에도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족의 보호는 <현봉쌍의록>에서도 반복된다. 한왕의 거짓 격서와 거짓 반시(反詩)로 요광현과 제왕을 모함한 사실이 밝혀지자 영락제는 “한왕 고구 부녀가 왕법을 범하였으나 차마 법을 더하지 못하였으니 만일 불공함이 있거든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마라”⁵²⁾라고 하며 살아생전에는 용서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흥희제에게까지 이어져, 운화군주의 고발로 한왕 부녀의 죄가 밝혀진 이후에도 처벌이 유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광현에게 태자를 부탁하며 “태자 어리니 반드시 한왕이 나라를 엿보리니 경은 사직지신이라. 힘써 태자를 도아 국가의 난을 업게 하라”⁵³⁾라고 경계하는데, 이는 한왕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가족적 유대 속에서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

이처럼 과도한 가족애는 한왕의 악행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이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결국 한왕 고구는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한왕은 임세린과 혼인한 효장공주를 반관옥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꾸미고⁵⁴⁾, 적녀 소소저를 태액지에 빠뜨려 죽였다는 누명을 씌워 효장공주를 심당에 가두게 한다.⁵⁵⁾ 나아가 천자의 용포와 태후의 적의를 도난당한 것으로 조작하여 효장공주

51) <쌍천기봉> 권4.

52) <현봉쌍의록> 권4.

53) <현봉쌍의록> 권5.

54) <성현공숙렬기> 권9.

55) <성현공숙렬기> 권10.

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는데⁵⁶⁾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효장공주의 한왕에 대한 한탄은 <임씨삼대록>에서도 이어진다.⁵⁷⁾ 이러한 설정은 단순한 정치적 야망을 넘어, 효와 우애를 저버린 패륜적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악행은 가족 구성원들의 애정과 인내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영락제는 반복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끝내 처단하지 못하며, 홍희제와 선덕제 또한 지속적으로 선처를 베푼다. 이처럼 한왕 고구는 가문 질서를 파괴하는 동시에 가족애를 시험하는 인물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서사 내 윤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핵심적 매개로 작용한다.

또한 일부 작품에서는 통제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강조된다. <임씨삼대록>과 <현봉쌍의록>에서 그는 딸의 악행을 무비판적으로 비호하며, 그 결과 악행의 범위는 가문 내부를 넘어 국가 질서로까지 확장된다. 한왕 고구는 <임씨삼대록>에서는 옥경군주의 아버지로, <현봉쌍의록>에서는 청능군주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이 경우 그는 더이상 문제적 아들에 머무르지 않고, 왜곡된 부성의 표상으로 재구성된다. 본래 부자지정은 도덕적 통제의 원리로 기능해야 하나, 여기서는 무조건적 편애로 변질되며 서사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

두 작품 모두에서 한왕은 딸의 악행을 제지하거나 교정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악행의 범위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문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핵심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으로, 허구 서사에서 창출된 독자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56) <성현공숙렬기> 권14.

57) <임씨삼대록> 권9. “한왕 거거 난을 지어 천정의 죄를 지어 폐위서인하고 동기를 갱잡에 몰아 넣어 대역으로 구가합문을 어육하라 한들 천의 무죄한 사람을 망하리오 거거 대역의 괴수되어 아버 식살흔 자신...”

<임씨삼대록>에서 한왕은 음란하고 난폭한 옥경군주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그는 옥경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호하고, 나아가 반란까지 도모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옥경군주는 “몹시 외람되고 요사스럽고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되며, 설희광을 보고 욕정을 품어 월환을 던지거나, 청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옥비녀로 책상을 내리쳐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성격은 “살기가 두우에 쏘이고 모진 기운이 마치 사람을 삼킬 듯하다”⁵⁸⁾는 표현에서 더욱 강조된다.

조왕의 권유로 옥경을 낙안으로 데려온 한왕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 없이 수용하며, 그 결과 옥경은 더욱 음란하고 파괴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나아가 옥경이 설희광과 혼인하지 못할 경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한왕은 상경하여 군사를 일으킬 준비까지 한다. 그러나 요도 묘월의 계책에 따라 옥경을 회왕의 딸로 위장해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방안이 제시되자, 그는 군사 행동의 시기를 조정한다. 이는 국가적 중대 사안인 반역조차도 딸의 혼인 문제에 종속될 만큼 그의 판단 능력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봉쌍의록>에서 한왕과 청능군주는 동일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병치된다. 청능군주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뜻이 교양하고 성정이 투한질능하니 이는 전주 한왕을 품수함이라”⁵⁹⁾는 서술은 부녀 간 성격의 동일성을 전제한다. 또한 요광현은 “한왕이 역모를 도모하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청능 부녀”라고 언급하며, 두 인물을 하나의 악행 주체로 인식한다. 한왕이 보낸 여도사 새옥 역시 심문 과정에서 “한왕과 청능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두 인물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한다.

58) <임씨삼대록> 권17. “살기가 두우에 쏘이고 모진 기운이 마치 사람을 삼킬 듯.....”

59) <현봉쌍의록> 권2. 백학 한쌍이 날아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요광창이 요광현에게 세상에 나갈 뜻이 있는지를 묻자 요광현은 “한왕이 역모를 도모하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청능부녀”라고 말한다. 한왕이 보낸 여도사 새옥이 요광현에게 잡혀 초사를 할 때도 “한왕과 청능이 시킨 일”이라고 하며 한왕과 청능은 항상 함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부녀가 동일한 성정과 악행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천자의 사혼으로 요광현과 혼인한 청능군주는 이숙혜와 운화군주를 시기하며 악행을 저지르고, 남편의 냉대가 심화되자 이숙혜의 정절을 훼손해 달라는 요청을 한왕에게 보낸다. 이에 대해 한왕은 별다른 판단 없이 여도사 새옥을 파견하고,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군관을 보내 납치를 시도한다. 이처럼 한왕은 청능군주의 악행을 개인적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적 혼란으로 확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청능의 과정을 요광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재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사건의 윤리적 판단을 수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전형적 양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형상은 <이씨효문록>의 만씨가 『명사』 속 만귀비의 악인형 인물 형상에 기반하여 창조된 사례와 대비된다. 김문희는 만씨의 형상이 전형적 악녀 모티브의 확장임을 논하고 있으나⁶⁰⁾, 한왕 고구의 사례는 딸의 악행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며 직접 개입함으로써 악행의 공동 창출자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서사적 의미를 지닌다. 즉, 국문장편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처처 갈등 모티브가 권력과 군사력을 지닌 아버지 인물의 개입과 결합할 때, 악행의 범위가 가문 내부를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

결국 한왕 고구는 판단력이 결여된 아버지로 형상화되며, 그의 무조건적 지원은 악행을 지속시키고 확대하는 촉매로 기능한다. 이러한 형상은 악인의 개인적 속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가부장 권력의 왜곡이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극대화함으로써 서사적 긴장과 도덕적 경각심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0) 김문희, 「고전소설의 명사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의 상상력- 明史의 만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9쪽.

4.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한왕 고구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한왕 고구는 단일한 인물이 아니라 권력 질서 교란자, 통치 부적합자, 가문 질서 위협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상화된다. 각 작품은 물론 동일 작품 내에서도 그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며 창조된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수용한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역사와의 거리를 확인하려는 관습적 접근에서 벗어나 허구적 세계에서 구성된 인물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주는 단순한 인물 묘사의 차이를 넘어, 장편 서사가 갈등을 구성하고 해결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왕 고구는 서사 속에서 정치 질서와 가문(왕실) 질서를 교란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중심 갈등을 형성하고 주동 인물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왕 고구의 형상화는 국문장편소설이 권력 질서와 윤리 질서를 서사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11편의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한왕 고구 형상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서사 구조적 측면에서 한왕 고구는 기능적 악인으로서의 위치를 점한다. 국문장편소설에서 그는 정치적 갈등을 촉발하는 인물로 작용하며, 태자와 황제 사이를 이간하거나 충신을 모함함으로써 권력 질서를 교란한다. 이러한 행위는 작품 전반의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며, 이야기의 긴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한다. 특히 장편 서사에서 정치적 음모와 권력 갈등은 긴장 유지의 중심 요소인데, 한왕 고구는 이를 조직하는 핵심 매개로 작용한다. 그의 존재는 질서와 무질서의 대비를 통해 정치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서사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앞 장에서 살펴본 세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성격 묘사처럼 보이지만, 구조적 차원에서는 일정한 기능적 반복을 보인다. 한왕 고구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인물이기보다, 서사의 긴장을 발생시키고 주동 인물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그는 '가해자(villain)' 혹은 '교란자'의 역할을 반복 수행하지만, 전면적 파괴자가 아니라 질서를 시험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중간 단계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세 유형은 각각 서로 다른 층위의 교란 기능을 수행한다. 권력 질서 교란자는 국가 정치 구조를 흔들고, 주체성 결핍의 악인은 통치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가문 질서 위협자는 윤리 질서를 시험한다. 이러한 세 층위는 분리된 범주라기보다 동일한 서사 원리가 확장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왕 고구는 '질서의 시험자'로서 국가·인적·가족이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때 한왕 고구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주체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배치된 반주체'의 위치에 놓인다. 충신 임희린, 요광현, 태자 등은 도덕성과 통치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제시되는 반면, 한왕 고구는 질투와 탐욕에 지배되고 충언을 거부하며 가족 윤리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하려는 존재로 설정된다. 이러한 대립 구조 속에서 그의 악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가치 대비를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그의 패배와 좌절은 주동 인물의 도덕적 승리를 서사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작품의 개별적 설정이 아니라 국문장편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서사 전략에 가깝다. 장편 서사는 긴 분량 속에서 갈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란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이 요구된다. 한왕 고구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적 매개로 활용된 것이다.

둘째, 역사 인물의 기능적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서사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적 세계에서 '한왕 주고후'의 서사는 단편적 기록에 의존해 제한적으로 전해지는 반면, 허구적 세계의 한왕 고구는 다층적이고 확장된

서사를 확보한다. 국문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왕 고구는 더 이상 ‘주고후’가 아니라, 새로운 서사 세계에 속한 독립적 인물로 자리한다. 실제로 <남계연담>에서는 붉은 머리털과 푸른 눈을 지닌 이질적 존재로, <쌍천기봉>에서는 우레같이 코를 고는 경박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또한 <옥호빙심>에서는 서사적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악인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처럼 한왕 고구는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성격과 악행의 정도가 조절되며, 정형화된 영웅 서사의 바깥에서 서사를 구성하는 장치이자 보조 인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 후기 11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이 인물이 이미 당대 독자들에게 서사적 흥미와 활용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왕 고구가 역사적 사실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며 허구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기존의 고전소설 연구는 역사적 사실과 서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수용 양상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역사를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산물’로 보는 관점⁶¹⁾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재구성 가능한 서사 자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소설은 역사적 공백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자율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⁶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왕 고구는 역사적 실존 인물 ‘주고후’와 단절된 채, 소설 속에서 독립적 주체로 재탄생한다. 동일한 ‘멍나라 성조의 아들’이라는 설정을 공유하더라도, <성현공숙렬기>와 <임씨삼대록>에서의 한왕 고구는 전혀 다른 성격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는 역사적 기록이 빈약할수록 작가의 ‘역사로부터의 자유’가 확대되며, 그만큼 인물 변주의 가능성 또한

61) 오세정, 「신화, 판타지, 팩션의 서사론과 가능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445쪽. 역사관의 변모를 주장하는 역사학자 파울 벤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어 참조한다.

62) 김현진, 「가능세계와 팩션 서사」, 『유럽사회문화』 16,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6, 38쪽.

확장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공백이 허구적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역사 기록이 제한적인 인물이 후대 서사에서 풍부하게 재구성되는 사례는 다른 문화 콘텐츠에서도 확인된다.⁶³⁾

한편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자주 악인으로 등장하는 엄송이나 만귀비는 풍부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사적 변형을 겪는다. 예컨대 <류황후전>에서는 만귀비의 결말이 역사 기록과 달리 유배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김문희는 『명사』에 수록된 엄송 관련 자료가 “간신 형상화와 악행 서사 구성의 주요 참고자료”가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⁶⁴⁾ 그러나 이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록이 빈약한 주고후는 오히려 허구 세계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아가 허구의 세계는 또 다른 허구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임씨삼대록>에서 한왕 고구는 반란 이후 처형된 뒤 다시 환생하여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로 재등장한다. 임치균은 이를 두고 “더 이상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소설적·허구적 인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⁶⁵⁾ 그러나 여기서 한왕 고구는 단순히 역사에서 분리된 존재를 넘어, 허구 내부에서 다시 파생되는 인물로 기능한다.

이는 <이씨효문록>의 만씨가 만귀비의 악행을 변용한 사례와 구별된다. 만씨가 기존 악인 형상의 재구성⁶⁶⁾이라면, 한왕 고구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인물 계열을 생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다시 말해, 그는 역사적 인물의

63) 중종실록에 단 10회에 걸쳐 간략히 소개된 ‘대장금’이 2003년 드라마화되면서 41%라는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역사 콘텐츠의 모범이 된 예도 역사적 공백이 허구적 세계에서는 무한한 세계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64) 김문희, 「고전소설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202쪽.

65)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연구회, 2010, 105~107쪽.

66) 김문희(2019), 앞의 논문, 25~30쪽.

재현을 넘어, 허구 세계 내부에서 또 다른 허구를 낳는 생성적 원형으로 작동한다

셋째, 한왕 고구의 서사는 독자적이면서도 상호텍스트적인 이야기 세계를 형성하며 독자와 소통한다. 텍스트의 수용자인 독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이야기 세계를 구성하고,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동일 인물인 한왕 고구를 서로 다른 작품과 맥락 속에서 변주된 형태로 경험하게 되며, 하나의 작품 내에서도 상이한 성격의 '고구'를 접하는 일종의 크로스오버적 독서 경험을 하게 된다.

<남계연담>과 <현봉쌍의록>은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남계연담>에서는 덕경후 요영춘과 등문고를 올린 아들 요권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반면, <현봉쌍의록>에서는 동일한 일화가 가문 소개의 일부로 재배치되고, 요광현이 중심인물로 서사를 이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동일한 서사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서사적 중심을 형성함으로써, 마치 연결된 세계관을 구성하는 듯한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작품에 등장하는 한왕 고구 역시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드러낸다. <남계연담>에서는 흥몽과 함께 태어난 이질적 존재로 제시되는 반면, <현봉쌍의록>에서는 낙안주를 봉토로 지닌 왕이자 청능군주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현봉쌍의록>과 <임씨삼대록>에서도 한왕은 각각 청능군주와 옥경군주의 아버지로 등장하며, 부녀 서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인물은 외모와 성격에서 대비를 이루며 서사적 긴장을 형성한다. 또한 작품 간에는 사건의 전개와 결말이 상이하게 변주되는데, 예컨대 한왕의 운명이나 행동 양상은 각 작품의 서사적 맥락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이러한 변주는 동일 인물이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과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작품 간 서사는 상호 연계되거나 확장되기도 한다. <쌍천기

봉>에서 제시된 해정량의 복수 서사는 <옥호빙심>에서 해소되며, <임화정연>의 난봉꾼적 한왕은 <쌍성봉효록>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로 변주된다. 이는 개별 작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상호 연결된 서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왕 고구는 단일한 서사에 고정된 인물이 아니라, 작품 간 이동과 변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인물이다. 독자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도, 혹은 여러 작품을 연속적으로 읽는 과정에서도 이 인물의 변주를 경험하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한왕 고구는 개별 서사 내부를 넘어,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 세계를 생성하는 매개로 기능하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왕 고구의 소설화 양상을 역사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서사 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한왕 고구는 역사 인물의 단순한 재현이나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장편 서사의 갈등 구조를 작동시키는 기능적 인물로 재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기록 속 한왕 주고후는 반역을 도모한 정치적 왕자로서 제한된 정보만을 남기고 있다. 그는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야심을 지닌 인물로 기록되지만, 그 성격과 행위는 주로 권력 투쟁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반면 국문장편소설 속 한왕 고구는 난봉꾼, 비주체적 조력자, 판단력 없는 아버지,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 등으로 다층적으로 변주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서사가 요구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인물이 기능적으로 재배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장에서 한왕 고구의 형상화 양상을 세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다양한 모습은 구조적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그는 권력 질서를 교란하여 국가적 갈등을 유발한다. 둘째, 주체성이 결핍된 존재로서 통치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다. 셋째, 가문 질서를 위협하는 구성원으로서 가족 관계를 파괴하거나 시험한다. 이 세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상이하지만, 모두 ‘질서의 시험자’라는 동일한 서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통합된다.

4장에서는 한왕 고구가 지니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는 단순한 역사 인물의 재현을 넘어, 서사를 조직하는 핵심적 기능 인물로 자리한다. 권력 질서, 인격적 자질, 가문 윤리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질서를 교란하며 중심 갈등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왕 고구는 ‘기능적 악인’이자 ‘질서의 시험자’로 작동하며, 주동 인물의 도덕성과 통치 정당성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결국 그의 소설화 양상은 개별 인물의 변주를 넘어, 장편 서사가 역사 인물을 활용하여 갈등을 조직하고 윤리 질서를 시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왕 고구는 역사 기록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다양한 성격과 서사적 기능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이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허구적 세계를 능동적으로 확장하는 서사 전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는 개별 작품 내부를 넘어 작품 간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도 변주되며, 서로 다른 서사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왕 고구의 형상화는 권력 질서와 윤리 질서를 서사적으로 조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허구 세계의 확장성과 독자 수용의 역동성을 함께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현대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특히 사용자의 참여에 따라 서사가 변형·확장되는 구조는 메타버설적 서사 환경과도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⁶⁷⁾ 국문장편소설이 이미 다양한

매체로 재창작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왕 고구와 같은 변주 가능한 인물은 웹소설, 드라마, 게임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중국 역사 인물을 한국적 서사 속에서 재구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역으로 문화 콘텐츠로의 재수출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왕 주고후'를 소재로 한 중국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은 이 인물이 여전히 매력적인 서사 자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결국 한왕 고구는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장편 서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확장되는 생성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67) 윤현정 외, 「메타버스 개념과 유형에 관한 시론-가상세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2, 인문콘텐츠학회, 2021, 66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남계연담>, 3권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2권 2책, 김광순 소장본
<삼강명행록>, 31권 3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성현공숙렬기> 25권 25책, 규장각본
<임씨삼대록> 40권 4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소명출판사
<옥호빙심> 4권 4책, 규장각본
<유이양문록> 77권 77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임화정연기봉> 72권 72책, 개인소장본
<쌍성봉효녹> 16권 16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쌍천기봉> 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상천기봉』, 1~9, 장시광, 이담출판사, 2017.
<현봉쌍의록>, 5권 6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완월회맹연』 1~12, 김진세, 서울대출판부, 1982.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명사」,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 단행본

-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1권: 1~424쪽, 17권: 1~326쪽, 20권: 1~498쪽.
안스가 님·베라 님·워엄, 조정식 외 옮김, 「내러톨로지와 가능세계이론: 대안세계로서 내러티브 텍스트」,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02, 1~436쪽.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메타 역사: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1,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1~493쪽.

3. 논문 및 기타

- 김문희, 「고전소설의 명사의 소설적 재현과 인물 구성의 상상력- 明史의 만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50쪽.
_____, 「고전소설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191~232쪽.

-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 18, 1993, 163~190쪽.
- 김현진, 「가능세계와 팩션 서사」, 『유럽사회문화』 16,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6, 35~54쪽.
- 남은경, 「대장금(大長今) 관련 기록의 현대적 수용 - 문화콘텐츠로의 생성과 전개 양상 분석」, 『동양고전연구』 43, 동양고전학회, 2011, 33~64쪽.
- 문용식, 「고전소설에 나타난 국가변란의 구현 양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24, 1994, 91~136쪽.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명사 수용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91~216쪽.
- 서정현, 「장편소설 속 반란을 소재로 한 군담의 양상과 의미 - 〈소현성록〉, 〈쌍천기봉〉,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연작, 〈남정팔란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9, 한국문학어문학회, 2024, 61~107쪽.
- 신호림, 「퇴계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36,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35~61쪽.
- 오세정, 「신화, 판타지, 팩션의 서사론과 기능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429~453쪽.
- _____, 「현대문화콘텐츠의 서사 세계 연구 -가능세계 분석을 통한 세계관 규명과 설화의 세계관 이해」, 『기호학연구』 67, 한국기호학회, 2021, 101~130쪽.
- 윤현이,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악행과 정치양상에 드러난 의미」, 『한국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2016, 205~236쪽.
- 윤현정 외, 「메타버스 개념과 유형에 관산 시론-기능세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2, 인문콘텐츠학회, 2021, 57~81쪽.
- 이은경,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의 양상과 의미 고찰」, 『한국고전연구』 6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5, 207~242쪽.
- 이현주, 「〈성현공숙렬기〉 역사수용의 특징과 그 의미-정난지변과 계후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0, 동아인문학회, 2015, 197~226쪽.
-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연구회, 2010, 87~116쪽.
- 장곤, 「〈옥호빙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1, 1~91쪽.
- 전기화, 「〈성현공숙렬기〉 속 악인형 인물과 내면의 문제」, 『고소설연구』 59, 한국고소설학회, 2025, 37~72쪽.
-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

- <옥호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규장각한국연구원, 2001, 55~83쪽.
- 주수민,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시·공간 배경과 재위 황제」, 『어문연구』 4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83~110쪽.
-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 연구」, 『어문연구』 36, 어문학회, 2008, 283~309쪽.

ABSTRACT

The Novelization Pattern and Meaning of 'Hanwang Gogu'
in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Lee, Eun-kyeong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fictionalization of “Hanwang Gogu,” a figure that repeatedly appears in Korean vernacular long novels, and explores the ways in which a historical figure is reconstructed within fictional narratives. Hanwang Gogu is based on Zhu Gaoxu, the second son of the Yongl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However, in these novels, he consistently appears under the name “Gogu” and is represented in ways that diverge significantly from historical records. While historical accounts of Zhu Gaoxu are fragmentary and limited, the fictional Hanwang Gogu is portrayed in diverse forms, including a violent authority figure, a lecherous character, a passive accomplice, and a figure who threatens familial order.

These variations are not merely differences in characterization but are closely tied to the structural demands of long narratives. Hanwang Gogu functions as a “functional villain” who initiates political conflicts and sustains narrative tension.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order and disorder, his presence highlights the morality and legitimacy of the protagonist. Moreover, he operates as a figure who tests and destabilizes order across multiple dimensions, including political authority, governing capacity, and familial ethics, thereby serving as a recurring structural device within Korean vernacular long novels.

Furthermore, because Hanwang Gogu is relatively unconstrained by historical documentation, he is reimagined through the author’s creative imagination in various narrative role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fictional worlds. This figure also undergoes transformations across different texts, forming intertextual connections that link multiple

narrative worlds. As a result, readers encounter multiple variations of the same character, enabling a layered and dynamic reading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representation of Hanwang Gogu demonstrates that Korean vernacular long novels actively reconstruct historical figures according to narrative functions rather than simply reproducing historical facts. This case illustrates a narrative strategy that transcends the boundary between history and fiction and underscores the autonomous and generative nature of fictional worlds.

Key Words Hanwang Gogu, Zhu Gaoxu, historical reception, fictional world, narrative structure, intertextuality

논문투고일: 2026.04.22.

심사완료일: 2026.05.12.

게재확정일: 2026.05.17.